

(770)

# 조실

주제 109  
(2020)

9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6차전원회의 진행

차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6차전원회의 진행 ..... 1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정무국회의 진행 ..... 4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6차 정치국회의 진행 ..... 5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국해방 75돐에 즈음하여 해방탑에 화환을 보내시였다 ..... 7

로투사의 한 쌍 ..... 8

자연의 재앙을 양관 내정쌍 인민들이 받아안은 권어비이사장 ..... 10

에네르기절약형, 록색형의 거리 ..... 12

묘향산의 여름 ..... 16

수도의 거리를 달리는 궤도전차들 ..... 20

《우리 집이 제일 좋습니라》 ..... 22

과학연구와 생산을 밀착시켜 ..... 24

인민들에게 더 많은 불고기를 ..... 26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바로세워 ..... 28

단천제련소 ..... 30

인민들이 선호하는 음료제품들을 ..... 32

광포호에 깃을 편 검은고니 ..... 32

단나무고장을 찾아서 ..... 34

여자축구감독 라은실 ..... 36

조선예술교류협회가 걸어온 40년 ..... 38

동명왕릉 ..... 40

표지: 창전거리의 아침 사진 김성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6차전원회의  
결정서

주체109(2020)년 8월 19일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를 소집할데 대하여**

오늘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은 간고한 혁명투쟁을 조직전개하면서 전진도상에 가로놓인 모든 장애와 난관을 정면 돌파하며 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역사적과업을 실현해나가고있다. 당 제7차대회 결정을 관철하기 위한 지난 기간의 끝없는 투쟁과정에 우리 국가의 존엄과 지위는 비상히 높아지고 당과 인민의 일심단결이 더욱 강화되었으며 당건설과 당활동전반에서 커다란 혁명적전환이 이룩되었다.

반면 혹독한 대내외정세가 지속되고 예상치 않았던 도전들이 겹쳐드는데 맞게 경제사업을 개선하지 못하여 계획되었던 국가경제의 장성목표들이 심히 미진되고 인민생활이 뚜렷하게 향상되지 못하는 결과도 빚어졌다.

본 전원회의는 사회주의강국건설에로 향한 지나온 5년간의 사업에서 이룩된 경험과 교훈들을 분석총화하고 우리 혁명발전과 조성된 정세의 새로운 요구에 기초하여 올바른 투쟁로선과 전략전술적방침들을 제시할 목적밑에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를 소집할것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를 주체110(2021)년 1월에 소집한다.
2.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의정은 다음과 같다.
  - 1)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 2) 조선로동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
  - 3) 조선로동당규약개정에 대하여
  - 4) 조선로동당 중앙지도기관 선거
3.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대표자선출비율은 당원 1, 300명당 결의권대표자 1명, 후보당원 1, 300명당 발언권대표자 1명으로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6차전원회의가 주체109(2020)년 8월 19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전원회의를 지도하시였다. 전원회의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들과 당중앙 검사위원회 위원들이 참가하였다.

또한 당중앙위원회 부서 일군들이 방청으로 참가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의 위임에 따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전원회의를 사회하시고 역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될 것이라고 언급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당 제8차대회는 투쟁하는 대회, 일하는 대회, 당사업을 전면적으로 총화하는 대회로 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대회에서 토의할 안건들과 대회준비사업에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정면돌파전의 요구에 맞게 내적잠재력과 발전동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과 올해에 진행된 당정치국회의들에서 제시된 중요과업들을 다같이 힘있게 내밀어 당 제8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으로 맞이할것을 호소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당 제8차대회를 소집할데 대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6차전원회의 결정서초안을 랑독하시었다.

전원회의에서는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를 주체110(2021)년 1월에 소집할것을 결정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연설에서 올해 여러 측면에서 예상치 못했던 불가피한 도전에 직면한 주객관적환경과 조선반도주변 지역정세에 대하여 분석하시고 력사적인 당 제7차대회가 있는 때로부터 지난 4년간 우리 당과 국가사업에서 이룩된 성과와 결함들에 대하여 평가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특히 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의 마지막해인 올해 인민경제 여러 부분이 달성한 목표수행실적에 대하여 자료적으로 상세히 보고하시고 그 결과에 대하여 해석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연설에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우리 혁명의 중대한 시기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사업에서 나타난 편향과 결함들을 전면적으로, 립체적으로, 해부학적으로 분석총화하고 당과 정부앞에 나선 새로운 투쟁단계의 전략적과업을 토의결정하기 위하여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를 소집할것을 제의했다고 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당의 최고지도기관인 당대회를 정기적으로 소집하고 시대와 혁명발전을 인도하는 로선과 전략전술적 대책들을 확정하며 그 집행을 담보할수 있는 당의 지도기관을 정비 보장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당대회운영과 관련한 강령적지침을 명시 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당 제8차대회에서는 올해의 사업 정형과 함께 총결기간 당중앙위원회의 사업을 총화하고 다음해의 사업방향을 포함한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을 제시하게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정무국회의의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정무국회의가 8월 5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회의에 참가하시였다.

회의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무국 성원들인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과 당중앙위원회 중요부서일꾼들이 참가하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 회의를 사회하시였다.

정무국회의에서는 당중앙위원회에 새로운 부서를 내올데 대한 지구 문제를 검토의하였으며 당안의 간부사업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도적문제들에 대하여 연구협의하였다.

회의에서는 다음으로 정부기관의 주요직제간부들의 사업정형에 대하여 평가하고 해당한 대책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회의에서는 또한 국가최대비상체계의 요구에 따라 완전봉쇄된 개성시의 방역형편과 실태보고서를 료해하고 봉쇄지역 인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식량과 생활보장금을 당중앙이 특별지원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결정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긴급조치들을 취할것을 해당 부문에 지시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정무국은 이밖에 당내부사업에서 나서는 실무적문제들을 토의하고 그 집행을 승인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회의에서 토의된 문제들을 결론하시면서 당중앙위원회 정무국 성원들이 무한한 책임성과 헌신성을 발휘하여 담당한 부문의 사업들을 결정적으로 개선하며 당중앙의 결정을 충실히 집행하기 위한 올바른 사업방향과 중심을 유지하고 조직사업을 면밀히 짜고들어 모든 사업을 당중앙의 사상과 방침적요구에 맞게 혁명적으로 조직전개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6차 정치국회의의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6차 정치국회의가 8월 13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정치국회의에 참가하시였다.

정치국회의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이 참가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의 위임에 따라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 회의를 사회하시였다.

정치국회의에서는 모든 힘을 집중하여 큰물피해를 빨리 가시고 인민들에게 안정된 생활을 보장할데 대한 문제와 세계적인 보건위기 상황의 요구에 맞게 국가비상방역체계를 더욱 엄격하게 유지하고 정연한 방역사업지휘체계를 완비할데 대한 문제, 개성시를 비롯한 전연 지역봉쇄를 해제할데 대한 문제, 당중앙위원회에 신설부서를 내올데 대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였으며 당창건 75돐을 성대히 기념하기 위한 국가행사준비정형을 점검하고 해당한 대책을 연구협의하였다.

회의에서는 8월 상순에 있는 재해성폭우와 큰물에 의하여 발생한 피해

상황에 대한 자료통보가 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피해상황을 종합한 자료를 통보하시면서 집과 가산을 잃고 임시거처지에 의탁하여 생활하고있는 수재민들의 형편과 고통이 이루 말할수 없을것이라고 하시며 지금과 같은 때에 다른 그 누가 아닌 우리 당이 그들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며 인민들이 겪는 고생을 함께 하고 그것을 덜어주기 위하여 그들결로 더 다가가야 한다고 절절하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지금 우리 국가는 세계보건위기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한 방역전을 힘있게 벌리는것과 함께 예상치 않게 들이닥친 자연재해라는 두개의 도전과 싸워야 할 난관에 직면해 있다고 하시면서 당과 정부는 이 두개의 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한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립체적이고 공세적인 투쟁에서 세련된 령도 예술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수재민들이 한지에 나왔어 당창건 75돐을 맞이하게 할수는 없다고 하시면서 큰물피해를 하루빨리 가시고 인민들의 생활을 안착시키기 위한 부문별과업과 방도적문제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시였다.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국해방 75돐에 즈음하여 해방탑에 화환을 보내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국해방 75돐에 즈음하여 8월 15일 해방탑에 화환을 보내시였다.

해방탑에는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가 정렬해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보내신 화환을 위임에 따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리일환동지가

해방탑에 진정하였다.

화환의 땀기에는 《영원히 기억할것이다》라는 글발이 씌여져 있었다.

화환진정에는 평양시인민위원회 위원장과 외무성 부상을 비롯한 관계부문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조선의 해방을 위한 성전에서 고귀한 생을 바친 로씨야 인민의 아들딸들인 영용한 붉은군대 장병들을 추모하여 묵상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당의 령도에 충실한 군민의 대단결과 협동작전으로 10월 10일까지 큰물피해복구를 기본적으로 끝내고 주민들을 안착시키기 위한 당면투쟁과업을 반영하여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와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국무위원회 공동명령서를 시달할것을 제의하시였다.

정치국회의에서는 다음으로 비상방역전이 장기화되는데 맞게 국가적인 정연한 방역사업체계를 세우기 위한 기구적문제를 합의하였으며 새로 창설된 기구가 자기앞에 부여된 권능을 옹바로 행사하고 책임성과 역할을 높일데 대한 문제가 지적되였다.

정치국회의에서는 또한 최전연지역에서 발생한 비상사건으로 하여

지난 7월 24일부터 실시하였던 개성시를 비롯한 전연지역봉쇄를 전문방역기관의 과학적인 검증과 담보에 따라 해제할것을 결정하였다.

정치국회의에서는 다음으로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당창건 75돐을 성대히 기념하기 위한 국가행사준비사업 진척정형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행사별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점검하였으며 해당한 대책을 강구하였다.

정치국회의에서는 계속하여 당중앙위원회에 신설부서를 내올데 대한 문제를 심의결정하고 그 직능과 역할을 제시하였다.

정치국회의에서는 또한 조직문제가 취급되였다.





황순희동지와 기념사진을 찍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82(1993)년 7월



전국원군미풍열성자대회에 참가한 황순희동지와 이야기를 나누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91(2002)년 11월



제4차 전국로병대회에 참가한 황순희동지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주체104(2015)년 7월

지난 주체109(2020)년 1월 17일 항일대전의 참전자이고 증견자인 황순희동지가 서거하였다.

그는 일제의 군사적통치의 암담한 시기였던 1919년 5월 3일 살길찾아 낫설은 이국땅까지 흘러간 빈농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는 부모형제들을 빼앗아간 원수들에 대한 복수를 다짐하며 16살에 조선인민혁명군에 참군하였다. 자기를 데려가달라면서 유격대원들에게 매달려 성화를 먹고 강짜를 써서.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에는 그만큼 체소한 너대원도 얼마 없었으며 그는 입대초기 부대의 집이 되었다.

그러던 너전사는 주체25(1936)년 초봄 한 유격대밀영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처음으로 만나뵈었다. 남달리 키가 작고 나어린 그에게 꼭 훌륭한 유격대원이 되어야 한다고 하신 그의 믿음은 그를 더욱 분발시켰다.

미구에 그는 못사람들의 총애를 받는 혁명군의 꽃이 되었다.

가렬치절한 항일전의 나날 그는 이악하고 원칙이 강하면서도 인정미와 의리가 깊은 너투사로 성장하였다.

그는 조국해방을 앞둔 주체34(1945)년 여름 아버지수령님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육친적인 사랑속에 항일의 전우인 류경수동지와 가정을 이루었다.

해방후 그는 함경남도 혜산군(당시)에서 너맹위원장사업을 맡아 하면서 녀성들을 새 조국건설에로 불러일으켰다.

그후 그는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나가도록 힘과 용기를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믿음과 사랑속에 당학교를 졸업하고 주체54(1965)년 2월부터 조선혁명박물관의 책임일군으로 일하였다.

친히 사적자료들도 고증해주시며 신심을 주시고 결음걸음 이끌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손길아래 너투사는 항일혁명의 사적자료들을 발굴 고증하는 사업에서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권위자가 되었다.



황순희동지는 항일의 혁명전통을 빛내이며 새 세대들이 혁명의 대를 곳곳이 이어나가도록 하기 위한 사업에 한생을 바쳐왔다.

## 로 투 사 의 한 생

황순희동지의 인생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보살피심속에 즐기치게 이어졌다.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하였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와 가장 가까운 전우였던 황순희동지를 무한히 존경하시면서 그의 사업 방향과 방도도 일일이 밝혀주시고 그의 건강과 자식들의 장래까지

깊은 관심을 돌려주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믿음과 사랑은 황순희동지의 삶을 더욱 빛나게 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항일의 로투사들이 혁명전통의 전초기지를 굳건히 지켜주고있기때문에 우리 혁명의 명맥이 곳곳이

이어지고있다고 하시며 그의 건강과 생활, 가정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헤아려주시였으며 그가 올린 소박한 편지도 보아 주시고 친필서한까지 보내주시였다.

그 은정속에 너투사는 100살이 넘도록 조선혁명박물관 관장으로 사업할수 있었다.

많은 도서들과 회상기들을 집필하고 투철한 원칙성과 겸손하고 소탈한 품성을 지닌것으로 하여 온 나라 인민들이 존경하던 《빨찌산 할머니》의 유해는 대성산혁명렬사릉에 안치되었다.

글 최광호



황순희동지가 항일무장투쟁시기와 조선혁명박물관 관장으로 사업하던 나날에 있는 이야기들을 회상하여 수록한 도서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 《인민들속에서》

# 자연의 재앙을 당한 대청댁 인민들이 받아안은 친어버이사랑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리의 주민들에게 있어서 지난 8월은 평범한 달이 아니었다.

첫 충격은 8월초에 있었다.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련일 내린 많은 비와 폭우에 의해 물길제방이 터지면서 리안의 단층살림집 730여동과는 600여정보가 침수되고 179동의 살림집이 무너졌던것이다.

물란리를 보며 억이 막혔던 이곳 주민들 누구나 더 큰 충격을 받을줄 정녕 몰랐다. 8월 6일 은파군에서 많은 살림집들이 큰물로 침수되었다는 보고에 만사를 미루시고 마을을 찾아오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너무도 뜻밖에 만나뵈게 되었던것이다.

주민들의 생활을 하루빨리 안착시키도록 세심히 보살펴주시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시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7일 이른아침 또다시 마을을 찾으시였다.

다음날에는 피해복구를 위해 들어서는 인민군대를 맞이했다. 그리고 그 다음날에는 식량 등을 실은 차량들이 도착하였다. 또 다음날인 10일에는...

15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보내주신 의약품들을 또다시 전달 받을 때에는 녀성들은 물론 특한 남성들의 눈에서도 끝끝내 뜨거운것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더없는 고마움과 함께 바로 여기서 우리가 산다는 긍지의 분출이였다.

사진 조선중앙통신 글 정기상



많은 식량과 의약품 등을 받아안은 대청리인민들



# 에너지절약형, 녹색형의 거리



평양의 려명거리는 모든 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에 녹색건축기술이 도입됨으로써 에너지절약형거리, 녹색형거리의 면모를 훌륭히 갖추고 있다.

건물들마다에 태양열을 축열하였다가 리용하는 태양열난방기술과 함께 지열냉난방체계가 도입되었다.

그리고 모든 주민세대들에 태양빛전지판들이 설치되어 조명용전력을 자연에너지로 보장할수 있도록 되어있다.

지붕녹화기술도 혁신적이다.

지붕녹화는 환경보호에도 좋을뿐아니라 녹화하지 않은 건물보다 실내온도를 겨울철에는 2.5℃정도 높여주고 여름철에는 4.5℃정도

낮추어준다고 한다.

초고층살림집들의 기단층에는 측백나무, 향나무를 비롯한 사철푸른 나무들과 진달래나무 등 여러 꽃관목을 심었는데 봄이면 그 경관이 특별히 아름답다.

여러 공공건물들과 유치원, 탁아소 등에 건설된 지붕온실에서는

수경재배를 통한 남새농사들이 진행되고있다.

이밖에도 거리에는 벽면녹화기술, 비물처리리용기술과 같은 다양한 녹색건축기술이 도입되어 거리의 문화성과 경제적효과성을 다같이 살리고있다.

사진 신총일 글 김미에



려명거리의 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에는 태양빛전지판들과 태양열물가열기들이 설치되어있고 지붕 및 벽면녹화기술이 도입되어있다.



# 묘향산의 여름



평안북도 향산군과 구장군, 평안남도 녕원군, 자강도 희천시를 포괄하는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있는 묘향산은 예로부터 일러오는 조선의 명산중의 하나이다.

웅장하고도 기묘한 봉우리들과 큰 바위들, 깊숙한 골짜기들과 높은 벼랑들, 구슬같이 맑은 물과 수많은 폭포들, 울창한 수림과 그윽한 꽃향기에 갖가지 물소리, 새소리까지 한데 어울린 이곳은 사방 어디를 보아도 뛰어난 절경을 이루고있다.

묘향산이라는 이름도 산세가 기이하고 묘하며 향기를 풍기는 아름다운 산이라는데로부터 유래되었다.

이곳에는 옛 건물들을 비롯한 여러가지 건축물들과 인체문화유물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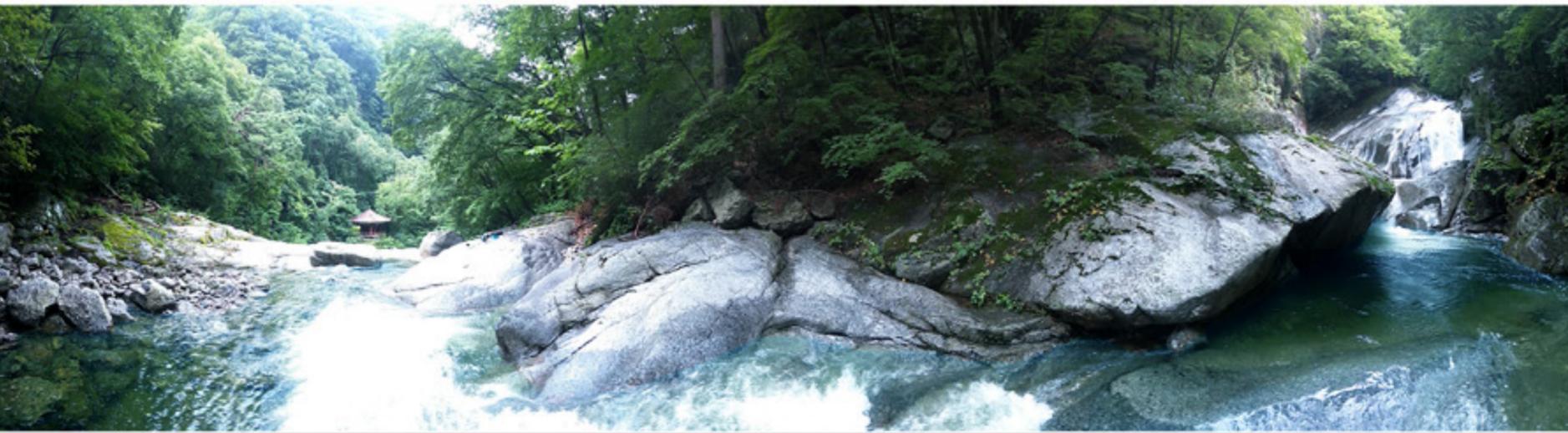
국제친선전람관



향산호텔



묘향산력사박물관



슬기롭고 근면한 조선민족의 창조적재능을 보여주는 유적유물들도 많이 보존되어있다.

묘향산에서도 가장 뛰어난 절승을 이루는 곳은 묘향천을 사이에 두고 앞뒤에 솟은련봉들과 기암들, 골짜기풍치로 이름난 상원동, 만폭동, 천태동, 칠성동 등 계곡들과 폭포들이 집중되어있는 신향산 일대이다.

이곳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흠모하여 세계의 수많은 당 및 국가지도자들과 각계층 인사들이 드린 선물들이 전시되어있는 국제친선전람관이 있는것으로 하여 더욱더 유명하다.

최근 이 일대가 찾아오는 사람들의 탐승과 휴식에 보다 편리하게 꾸려져 명산의 여름풍치를 더욱 돋구고있다.

향산호텔에서 묘향산력사박물관주차장까지 그리고 이곳에서부터 향비로봉표식비에 이르는 구간의 도로와 등산길들이 새롭게 변모되었다.

또한 천태폭포, 이선남폭포 등에 휴식터들이 꾸려지고 하천을 따라 여러개의 무늬이언체들이 세워졌으며 다리들도 훌륭하게 개건보수되었다.

사진 안철룡 글 유충일



수도의 거리를 달리는  
궤도전차들



# 《우리 집이 제일 좋습니다》



수도의 풍치수려한 대동강기슭에 평양육아원, 평양애육원과 처마를 나란히 하며 평양양로원이 자리잡고있다.

예로부터 건강과 장수를 상징하는 백학들이 즐지어 날으는 형상의 돌울타리로 둘러싸여 있는 조선식합각지붕의 2층건물은 다가설수록 민족적향취가 짙게 느껴진다.

주체104(2015)년 8월에 준공한 양로원의 연건축면적은 7 900여㎡이다.

이곳에는 50여개의 온돌침실과 침대침실, 식사실, 도서실, 운동실, 편의 및 의료봉사시설들, 내정과 온실, 리발을 비롯한 모든 생활시설과 요소들이 년로자들의 신체적, 심리적특성에 맞게 훌륭히 꾸려져있다.

후대들을 위하여 성실한 삶을 수놓아온 년로자들을 선배로 존경하면서 그들이 항상 건강하여 가정적환경에서 즐거운 생활을 누릴수 있도록 하는것이 양로원일군들의 하나같은 지향이다.

양로원에서는 여러가지 오락과 적당한 운동을 통한 보양생들의 몸단련 및 영양관리에 많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물론 식료품과 계절에 따르는 의복류와 화장품, 문화용품 등 로인들을 위한 모든 필수품의 보장은 국가가 전적으로 부담하고있다.

년로자들에 대한 높아가는 사회적관심속에 평양시와 구역안의 일군들과 청소년학생들도 자주 이곳을 찾는다.

그때마다 평양양로원에서는 모두가 어울려 부르는 노래 《세상에 부럼없어라》가 더 높이 울려 퍼지곤 한다.

사진 홍광남 글 김선경





평양시 룡성구역에 농업연구원 평양남새 과학연구소가 자리잡고있다.

연구소는 영양가가 높은 남새품종들을 육종하고 박막온실과 수경온실들에서의 다수확재배 기술을 연구개발하여 생산성을 높이는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하고있다.

영양가와 생산성이 높은 남새종자연구사업이 즐기차게 벌어지고있다.



## 과학연구와 생산을 밀착시켜

최근년간에만도 이곳 연구사들은 《줄도마도》, 《푸른도마도》, 《주름도마도》, 《검은사자고추》를 비롯한 도마도, 고추품종들과 유맥채, 홍배채 등 여러가지 기능성남새작물들을 새로 육종도입하였다.

살구만 한 열매들이 포도송이처럼 달리는 《줄도마도》는 일반도마도에 비해 항산화 물질함량이 1.4배나 높다.

매움도가 김장용 일반고추품종들에 비하여 7~8배나 높은 《온실매운고추 1》호는 소화

및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항암작용이 크며 비만증예방과 해소, 심폐기능강화 등에 좋다고 한다.

연구소에서는 온실남새의 생산성을 늘일수 있는 과학적인 영양액공급 및 환경관리방법,

컴퓨터화상자료에 의한 조기영양진단기술, 해비침세기에 따르는 영양액관수기술을 비롯한 앞선 연구성과들과 재배기술방법들을 도입하는 등 남새생산의 과학화, 집약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서도 많은 진전을 이룩하였다.

또한 남새연구와 생산이 결합된 단위담게 해마다 전국의 남새온실운영단위들을 위한 과학기술토론회를 조직하는것을 비롯하여 선진적인 온실남새재배기술과 경험을 온 나라에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도 힘있게 전개해나가고 있다.

사진 리진혁 글 박병훈



연구소에서는 영양가와 생산성이 높은 남새종자연구사업에 힘을 넣어 《줄도마도》, 《검은사자고추》를 비롯한 여러가지 기능성남새작물들을 새로 육종도입하였다.

# 인민들에게 더 많은 물고기를

- 평양메기공장에서 -

평양시 락랑구역 전진동에 평양메기공장이 위치하고있다.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그쫌하게 갖추어진 생산도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는것과 함께 최신양어기술을 적극 받아들이며서 물고기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다그치고있다.

그들은 빨리 자라고 사료단위도 낮은 증성 메기의 양어방법을 확립하였으며 물온도와 수질보장을 짜고들면서 더 많은 새끼메기를 생산하고있다.

공장에서는 양어부문 전문가들과의 연계 밑에 물고기생산주기를 줄이기 위한 연구 사업에 계속 힘을 넣는것과 함께 메기의 매 생육

단계에 따르는 첨가제들을 개발도입하여 먹이 단위소비기준을 낮추면서도 증체률을 높이고있다.

그리고 태양열물가열기를 적극 받아들이는 등 자연에너지를 활용하고 물재순환체계를 효과적으로 리용하는것과 함께 메기수확기와 선별기를 비롯한 설비들의 성능을 부단히 개선하여 물고기생산원가를 계속 낮추고있다.

수도시민들의 식생활향상에 이바지하려는 평양메기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하여 이곳에서는 흐뭇한 물고기수확 풍경이 계절에 관계없이 펼쳐지고있다.

사진 리명국 글 박영조





설비 및 동력과에서도 여러 타일생산공정들의 정상가동을 보장하는 첨단설비들의 조종프로그램을 훌륭히 완성하여 타일의 만족도와 투명도를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수 있게 하였다.

연료문제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면서 경영활동에서 많은 실리를 얻고있는 공장에서는 지금 생산능력을 확장하기 위한 건설과 여기에 갖출 현대적인 타일생산공정 및 설비들의 설계와 제작도 자체의 튼튼한 과학기술력에 의거하여 줄기차게 내밀고있다.

사진 최원철 글 박병훈

##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바로세워

남포시 천리마구역에 위치하고있는 천리마타일공장에서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경영활동에서 계속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자, 노동자들은 현대과학기술에 토대하여 제품생산에 필요한 원료, 자재의 국산화비중을 높이고 현존설비들을 갱신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공업시험소의 기술자들은 유약을 100% 국산화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프리트를 자체로 개발완성할 높은 목표를 세우고 고심어린 연구를 거듭해왔다.

그들은 프리트의 질이자 유약의 질이고 그것이 곧 타일의 질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이악하게 노력하여 마침내 프리트가 없다고 하던 기성관념을 깨고 국내원료를 리용하여 질좋은 프리트를 다량생산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그리고 유약생산에 필요한 여러가지 첨가제들도 새롭게 완성한데 토대하여 색의 선명도나 질감 등에 있어서 일반대리석타일과는 비교할수 없는 유면연마타일에 이어 국내원료를 리용한 내동성외벽타일도 개발하였다.

공장에서는 국내원료에 의거하여 다색화, 다양화된 타일제품들을 생산하고있다.



# 단 천 제 련 소

단천제련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유색금속공업의 발전을 추동하는 가치있는 성과들을 이룩하면서 증산의 동음을 높이 울려가고있다.

최근년간 기업소에서는 이미 있던 생산공정들을 현대화하기 위한 사업을 줄기차게 내미는것과 함께 그 과정에 나오는 폐설물을 리용하여 여러가지

유가금속을 회수하기 위한 공정들과 첨가제생산공정 등을 새로 일떠세워 생산장성의 굳건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 과정을 통해 제련소의 기술력량이 더욱 강화되었으며 자강력을 발휘할 때 그 어떤 어려운 문제도 능히 해결할수 있다는 관점이 모든 일군들과 종업원

들의 마음속에 새겨졌다.

하여 기술자, 기능공들속에서 제련실수율을 높이기 위한 기술혁신안들을 창안하고 필요한 설비, 부분품들을 자체로 생산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전례없이 강화되는 속에 지금 아연생산공정과 유가금속생산 공정, 산화아연생산공정을 비롯한 모든 생산공정들이

만부하를 걸고있다.

제련소의 일군들은 현대적인 생산지휘체계를 통하여 생산단위들간의 연계와 협동을 강화하면서 더 많은 유색금속을 생산하기 위한 대책들을 빈틈없이 세워나가고있다.

사진 홍광남 글 정기상



# 인민들이 선호하는 음료제품들을

평양시 만경대구역 축전1동에 경흥은하수 음료공장이 자리잡고있다.

주체106(2017)년 9월의 조업초기 이곳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수는 5가지에 불과했다.

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경영활동과

생산활성화의 방도를 제품의 질제고와 새 제품 개발에서 찾았다.

특히 사람들의 건강과 장수를 도모하는 새 제품개발에 전력을 다하였다.

각종 천연재료들을 분석한데 토대하여 그 맛과

향기를 살려내는것과 함께 영양물질들을 보존 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그리고 콜라겐, 펩티드 등 영양제들을 첨가 하여 비타민음료 등 새로운 기능성음료들을 개발하는데 힘을 넣었다.

이와 함께 공장에서는 생산된 제품들에 대한 사용자들의 소감과 의견을 청취하는것을 제도화 하면서 그 질을 계속 높이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있다.

오늘 공장에서는 6종에 120여가지에 달하는

제품들을 생산해내고있으며 이 음료들은 사람들속에서 그 인기가 날로 높아가고있다.

그와 함께 공장은 벌써 국내의 이름있는 음료생산단위의 하나로 되었다.

사진 최명진 글 최이림



## 광포호에 깃을 편 검은고니

함경남도 정평군의 광포호반에 전국적으로 손꼽히는 가금생산기지인 광포오리공장이 자리잡고있다.

바다자리호수인 광포는 먹이풀과 떠살이동식물이 풍부한것으로 하여 가금업에 매우 적합한 환경을 가지고있다.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오리고기생산을 계속 다그치는것과 함께 가금품종을 늘일 목표를 세우고 이악하게 노력하여 검은고니를 풍토순화시키는데 성공하였다.

그들은 해당 부문 과학자, 연구사들과의 긴밀한 연계밑에 검은고니의 사양관리에서 나서는 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는것과 함께 호반과 가까운 곳에 일정한 크기의 인공섬을 만들었고 소나무가 우거진 산기슭에는 태양열을 리용하는 수조를 건설하여 검은고니의 서식환경을 보장하였다.

검은고니는 땅우에 둥지를 틀고 한배에 6~8알을 낳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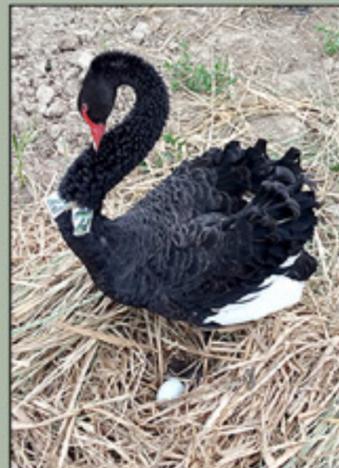
모양은 고니와 비슷한데 대부분의 깃이 검고 꼬리부분에만 흰 깃과 어울려있으며 부리는 붉은색이다.

사양공들은 평상시에는 성질이 온화하지만 번식기에는 환경에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조심성이 많은 검은고니의 사양관리를 위해 많은 수고를 기울였다.

결과 이곳에 자기들의 보금자리를 틀게 된 검은고니들이 올해 여름부터 저마다 경쟁적으로 알을 낳기 시작하면서 그 마리수는 계속 늘어나고있다.

그와 더불어 광포호반의 풍치도 더욱 이채로와지고있다.

사진 최원철 글 박병훈



# 단나무고장을 찾아서

옛날에는 돌자랑밖에 할것이 없었다는 황해북도 연탄군에서 자기 지방의 특성에 맞게 산을 잘 가꾸어 재부를 창조해가고있다.

오늘 이곳은 단나무고장으로 전국에 소문났다.

연탄읍에서 15리정도 떨어진 곳에는 산비탈마다 층층이 자기의 푸름을 한껏 펼친 40여정보의 단나무림이 있다.

이것은 군원천동원사업소에서 10여년전부터 조성하여온것이다.

이전에는 토심이 밟고 비가 오면 흙이 씻겨내려 못쓸 산으로 치부하던 곳이었다.

그러나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자기 고장을 살기 좋은 곳으로 꾸려갈 일념 안고 경제적가치가 있는 단나무림조성에 한사람같이 떨

쳐나섰다.

그들은 바위들을 걷어내고 부식토를 날라다 깔면서 나무모들을 한그루한그루 심어나갔다.

물론 처음에는 제대로 자라지 않아 무척 애를 먹었다. 그러나 전문 연구단위와의 긴밀한 련계밑에 비배관리에서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갔다.

하여 척박했던 땅에 뿌리를 내리고 푸르싱싱 자라는 단나무들이 점차 숲을 이루어 몇년후부리는 나무마다 많은 열매가 주렁지게 되었다.

이에 맞게 사업소에서는 가공설비들도 갖추어놓고 정액, 차, 줄임, 단물을 비롯한 제품들을 생산하고있다.

단나무열매는 피속의 콜레스테롤함량을 낮추고 항산화작용과 모세혈관강화작용을 하는 영양물질을 많이 포함하고있어 심장혈관계통의 병치료에 아주 좋다고 한다.

이제는 군안의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과 살림집들그어디나 할것없이 단나무를 많이 심어 가꾸고있다.

오늘 이 단나무들은 군내인민들의 생활향상에 큰 보탬을 주고있다.

사진 홍광남 글 박영조





라은심은 2015년 동아시아축구연맹 여자동아시아컵경기대회를 비롯한 여러 국제경기들에 참가하여 조선여자축구팀이 우승을 쟁취하는데 이바지하였다.

라은심은 조선의 여자축구계에 깊은 자욱을 새긴 체육인의 한사람이다.

함경북도 경성군에서 태어나 어릴적에 부모를 따라 청진시로 옮겨간 그는 소녀시절부터 축구를 시작하였다.

해마다 전국청소년체육학교경기대회에 참가하는 과정에 앞날이 기대되는 선수후비로 주목된

그는 국내여자축구강팀의 하나인 압록강체육단 여자축구팀의 선수로 선발되었다.

중앙공격수가 갖추어야 할 자질과 능력을 끊임없이 세련시켜 국내 1부류여자축구경기들에서 전문가들의 관심을 모은 그는 그후 국가대표팀 공격수로 당선되었다.

그는 주체95(2006)년 제3차 아시아청년여자

## 여자축구감독 라은심

축구선수권대회를 계기로 첫 국제경기에 출전하였는데 상대팀 선수들에 비하여 키는 작지만 방어진을 중형무진하면서 불의적인 먼거리차넣기를 하는것과 같은 특기기술로 네골을 득점함으로써 자기의 자질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다음해의 2007년 아시아청년여자축구

선수권대회에서는 최고득점수상과 최우수선수상을 다같이 받는데 이어 그해 연간 아시아청년최우수상을 수여받았다.

그는 2013년 동아시아컵여자축구경기대회때부터 국가대표팀의 주장이 되었는데 상대팀의 방어진을 뒤흔들며 통쾌한 골을 넣기도 하고 득점에 유리한 기회를 조성하는 조직자의 역할도

능숙하게 수행하였다.

그리고 경기경험이 어린 선수들을 고무격려도 해주면서 높은 경기의식과 통솔력을 발휘하였다.

그후 주체104(2015)년에 진행된 동아시아축구연맹 여자동아시아컵경기대회에서 그는 최고득점수상을 또다시 수여받았다.

라은심은 여자월드컵경기대회, 아시아경기대회, 세계대학생체육경기대회 등 112차의 국제경기들에 참가하여 득점명수로 명성을 떨치였다.

축구전문가들과 애호가들, 관중들은 지칠줄 모르고 쉬임없이 경기장을 달리는 그를 두고 자기 이름보다 《들말》이라는 애칭으로 불렀다.

나라에서는 여자축구 발전에 뚜렷한 자욱을 새기고 금메달로 조국의 영예를 떨친 라은심을 로력영웅, 인민체육인으로 내세워주었다.



라은심이 2007년 아시아청년여자축구선수권대회를 비롯한 여러 국제경기들에서 받은 상들

그후 조선체육대학을 졸업한 라은심은 오늘 압록강체육단 여자축구감독으로 사업하면서 앞날의 훌륭한 선수들을 키워내기 위하여 훈련장을 함께 달리고있다.

사진 안철룡 글 박병훈



로력영웅, 인민체육인인 압록강체육단 여자축구감독 라은심



# 조선예술교류협회가 걸어온 40년

오늘 세계의 많은 진보적예술단체들과 예술인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예술발전에 대해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있으며 조선의 예술단체들과의 교류를 희망하고있다.

평양시 중구역의 평양국제문화회관에 자리잡고있는 조선예술교류협회는 이들과의 사업을 자기의 사명으로 하고있다.

협회의 활동은 평양에서 열리는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의 조직과 운영과정에 뚜렷이 부각되고있다.

음악과 무용, 교예부문을 다 포함하고있는

이 국제예술축전이 1980년대 전반기부터

지금까지 100여개 나라의 1 100여

개에 달하는 이름있는 예술

단체들과 수많은 국제

및 국내콩쿨수상자들의

참가하에 31차에

걸쳐 대성황리에

진행된것은 적

극적인 활동과

떼여 놓을 수

없는것이다.

협회에서는

국내예술단체들의 외국공연, 예술축전 및 미술전시회참가 등을 위한 사업과 외국의 예술단체들과 예술전문가들의 조선방문을 위한 사업도 적극적으로 벌려오고있다.

인류공동의 문화적재부를 소중히 여기고 그 발전을 도모하는것으로 일관된 협회의 활동은 평화와 친선을 지향하는 세계 모든 나라, 민족들과의 관계를 계속 공고발전시키려는 공화국의 원칙적립장에 부합되는것으로 하여 앞으로 더욱 활기를 띠고 전개될것이다.

지난 8월 30일 협회는 창립 40돐을 맞이하였다.

사진 리진혁 글 김필







동명왕릉

평양시 력포구역 룡산리에 조선의 첫 봉건국가였던 고구려(B.C. 277년-A.D. 668년)의 건국시조왕인 동명왕의 룡이 자리잡고있다.  
 동명왕의 무덤은 그가 활동하다가 사망한 고구려의 첫 수도인 졸본에 있었는데 수도를 옮기면 시조의 무덤을 함께 옮기는 민족풍습에 따라

427년 평양이 고구려의 수도로 되면서 이곳에 옮겨왔다.  
 동명왕의 본래이름은 주몽인데 활을 잘 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주몽이 22살에 고구려를 세우고 19년동안 나라를 다스리다가 세상을 떠난 후 동명왕으로 불리우게 되었다.

동명왕릉은 주체82(1993)년 5월에 훌륭히 개건되었다.  
 남향한 돌칸흙무덤으로서 높이가 11.5m인 룡의 밑부분은 네면에 돌을 다듬어 기단을 쌓았는데 그 한변의 길이는 34m이다.  
 룡의 내부는 안칸, 앞칸, 무덤길로 이루어져있는데 각이한 크기로 가공한 돌을 가지고 쌓았다.  
 룡으로부터 남쪽으로 약 120m 떨어진 곳에는 동명왕의 명복을 빌던 고구려시기의 불교사찰인 정릉사가 있다.  
 조선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가 깃들어있는 동명왕릉은 오늘 훌륭히



천정      천정벽화      련꽃무늬벽화  
 보존관리되고있으며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오고있다.  
 사진 홍광남 글 박영조



고구려시조 동명성왕기적비



동명왕릉 제당의 외부



정릉사

